

광진·은평노인복지관
평생학습관으로 선정

불교계 노인복지관들이 평생학습관을 선정해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은 2008년도 까지 행정자치구별로 평생학습관을 1관씩 지정 운영할 계획으로 올해 처음으로 다섯 군데에 평생학습관을 지정했다. 이 가운데 서울 광진노인종합복지관(관장 화평)과 서울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관장 고재욱) 등 불교계 복지관 두 곳이 평생학습관으로 선정돼 향후 3년간 운영된다. 나머지 3곳은 서울특별시가 직영하는 개포, 강서, 송파구립도서관으로 선정됐다.

5월 25일 개소식을 한 은평노인종합복지관 내 은평평생학습관은 어르신들을 위한 한글 및 컴퓨터, 법률학, 건강고시 준비반, 지역 아동을 위한 아동서당과 독서클럽, 일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어학당 등을 운영한다. 특히 은평노인종합복지관은 명지대 평생교육원과 교육협력 협약을 맺고 연계학점은행제도를 실시해 어르신들이 전문학사,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할 기회를 마련했다.

광진노인종합복지관도 지역주민뿐 아니라 소외계층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5월 9일 평생학습관을 열었다. 광진평생학습관은 '광진 브라운 아카데미'와 '광진 서포터즈 클럽' 등으로 구성된다.

이은비 기자

'비구니 수행전통' 포럼
6월1일 비구니회관에서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명성)는 6월 1일 서울 비구니회관 대강당에서 '한국 비구니 수행 전통에 대한 포럼'을 주제로 학술발표회를 개최한다.

1부와 2부 발표회에서는 고대 비구니 스님들의 삶을 조명하고 청규와 강원 변천사를 중심으로 각각 주제발표하며 3부는 근대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법을 소개하는 논문들이 소개될 예정이다.

1부 발표회에서는 이화여대 김영미 교수의 '삼국-고려시대 비구니의 삶과 수행'을 포함해 3편의 논문이 소개되고 2부와 3부 발표회에서는 동국대 교수 해인 스님의 '한국 비구니선원의 '청규'에 대한 고찰' 중앙승가대 교수 분각 스님의 '한국 비구니 승가의 출가정신 확립에 대한 고찰' 삼선승가대학 학장 수경 스님의 '근·현대 강원 변천사' 등을 포함해 10편의 논문이 발표된다.

노병철 기자

♪ “목숨 걸고라도 전쟁은 막아야~” ♪

日 우경화를 걱정하는 일본인·한국단체
나눔의 집서 한일 평화노래 교류행사

“슬픈 역사를 되풀이할 수 없다/ 남은 목숨을 걸고라도 전쟁은 막아야 한다/ 사랑, 사랑, 사랑/ 사랑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다...”

낯선 일본인 가수가 통기타를 메고 ‘나눔의 집’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바치는 노래를 부르며 시작됐다. “할머니들을 생각하며 작곡했다”며 “제목은 ‘사랑(愛)’이다”라고 서툰 한국어로 서두를 연 다음이었다. ‘사랑’이 할머니들의 가슴을 울렸던 것일까. 그의 노래를 듣는 ‘나눔의 집’ 할머니들이 눈시울을 흘렸다.

5월 21일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서 뜻 깊은 행사가 열렸다. 일본 우경화를 걱정하는 일본인들과 한국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일 평화노래 교류행사’를 가진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일본인 40여 명으로 결성된 ‘일본헌법9조 수호

한국방문단’과 흥사단, 창작21작가회, 안양사랑청년회, 평화박물관 건립위원회,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 등 한국인 민간단체 회원 40여 명이 모였다. ‘일본헌법9조’는 일본이 패전직후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적 의미를 담아 제정된 조항.

이들은 준비해 온 평화노래와 일본 고전곡을 ‘나눔의 집’ 위안부 할머니들 앞에서 공연하고 서신을 낭송하는 등 평화와 화합의 한마당을 펼쳤다.

이날 ‘일본헌법9조 수호 한국방문단’을 이끌고 ‘나눔의 집’을 찾은 일본인 가수 겸 평화운동가 기타가와 테츠오는 “우리는 고이즈미 수상과 자민당의 행동을 비판하며 ‘가해’를 반성하고 헌법 제9조를 지키자”고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는 민간인들”이라고 소개한



일본인과 한국인 양국의 민간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나눔의 집 할머니들과 평화노래 교류행사를 열었다.

뒤 “일본인의 한 사람으로서 할머니들에게 사죄하고 일본 내에도 이런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음을 알려드리고 싶었다”고 방언이유를 밝혔다.

다케나카 유키씨(78세)는 한국어로 쓴 편지를 할머니들에게 전달했다. 유키씨는 “일본이 귀국에 침략해 한국어를 빼앗아 버렸던 역사를 사죄하기 위해서 한국어를 배워왔다고 결심하고 1990년부

터 한국어를 공부했다”며 “거듭 죄송하다”고 했다.

또 쿠보쿠라키(57세)는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 배운 적이 없었는데 직접 만나 보고 감춰진 진실에 대해 들으니 부끄럽기 그지없다”며 “일본으로 돌아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진실을 힘닿는 데까지 전하는 운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글·사진/경기도 광주=이은비 기자

한인유골 8·15전 1차 송환

韓日불교문화교류대회, 한·일 비구니스님 공식 교류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공동회장인 지관스님(오른쪽)과 이아비야시 스님이 손을 맞잡고 있다.

제27회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회장 지관·이아비야시)가 5월 17-19일 양국 대표단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일본 나가노 일대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18일 ‘불교 발전과 세계평화 한일 양국 불교계 가 노력하자’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센코우지(善光寺) 본당에서 세계평화 기원 합동법요식을 병행했다.

19일에는 ‘제2차대전 한국인 회

생자 합동유령제’가 일본 정토종 사찰인 우텐지(祐天寺)에서 열렸다. 일제강점기 한국인 희생자 유해가 봉안된 우텐지에는 모두 1135위의 유골이 안치되어 있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회 이사장 흥파 스님은 “유족이 확인된 166위는 보인다”며 “한국측 정부관계자인 박승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이 이번 행사에 처음으로 동점해 정부차원의 실태 파악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골봉환문제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18일에는 한국과 일본의 비구니 스님들의 공식 교류가 이뤄져 눈길을 끌기도 했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장 명성 스님은 “한일 양국 비구니들의 우호를 돈독히 하기 위한 활발한 상호교류를 제안한다”며 “한일 비구니 문화원을 건립하

자”고 제안했다.

센코우지 법주 다카스카사 스님도 “한국에서 온 비구니 스님들을 환영하며, 대화를 통해 양국 비구니 교류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남에는 수현 자광 해원 일법 해운 스님 등 전국비구니회 임원들이 주축이된 한국측 비구니 스님들과 일본 측 비구니 대표 30여명이 참석했다.

조용수 기자

저수지에 문화재 숨긴
도굴범 4명 검거

경북 의성에 있는 한 사찰의 5층 석탑 등을 도굴해 저수지에 감춘 도굴범 4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북 수성경찰서는 5월 20일과 22일 양일에 걸쳐 도굴범들이 문화재를 감춘 청도군 풍각면 치산리 구지저수지를 수색해 석탑과 석불, 문관석 등 문화재 4점을 찾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잡힌 석탑은 경북 의성군 신병면 중흥1리에 소재한 옛 절터에 있던 비지정문화재 5층 석탑으로 높이 160cm, 무게 150kg 정도로 비교적 작은 석탑이다.

노병철 기자

생태사찰 만들어보요
사찰생태원 등 기행·교육

사찰생태연구소와 불교환경연대가 불자들의 환경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을 연이어 준비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사찰생태연구소(소장 김재일)는 6월 3-4일 봉화 청량사와 영주 회방사에서 ‘생태사찰 만들기’를 위한 모니터링과 생태기행’을 떠난다.

이날 행사는 사찰 생태모니터링과 생태해설에 대한 시연, ‘생태시각으로 본 사찰문화’를 주제로 한 김재일 소장의 특강, 불교와 환경에 대한 청량사 주지 지현 스님의 법문 등으로 진행된다. (02)745-5813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수경)도 6월 17일과 24일 서울 진관사에서 각 사찰 스님과 종무원, 어린이·청소년법회 지도교사, 종립학교 교사 등을 대상으로 불교생태교육 지도자 연수회를 연다. 사찰생태를 바르게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론과 현장 교육이 병행될 예정이다. (02)720-1654

박봉영 기자

차기총장 선출 ‘간선? 직선?’

동국대 재단-교수회 갈등

동국대 차기 총장 후보 선출 방법을 두고 법인과 교수회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서울캠퍼스 교수회(회장 이종욱)와 경주캠퍼스 교수회(회장 이대원)는 5월 23일 서울 상록원과 경주 소강당에서 각각 비상총회를 열고 법인의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 반대 및 총추위 참여 거부를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같은 날 서울캠퍼스 직원 노동조합도 인사비상총회를 열고 차기 총장선거와 관련해 교수회와 더불어 직선제를 실시하는 안건을 89.2%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또 직선제 실시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해 집행부에 위임했다.

법인 안과 관련, 교수회측은 “법인의 권력화된 세력이 차기총장을 일방적으로 선임하려는 의도”라며 반대하고 있다. 즉 간선제를 택할 경우 “개인의 자유로운 의견 표출이 어려운 억압적인 분위기 때문에 간선제는 결국 소수에 의해 반민주적으로 운영될 뿐”이라는 것이다.

교수회측은 또 “학교 구성원간의 갈등을 막기 위해 이번 선거는 기존 직선제로 하고 차기 선거부터 관련 규정을 제정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현재 동국대 장관에는 ‘총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는 규정이 없다.

그러나 동국대 이사장 영배 스님은 “교수회가 독선과 아집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즉 이사회 안은 “교수뿐만 아니라 직원, 종단 대표, 동문, 학생 등 하나 구성원 모두가 참여한 상태에서 총장 후보를 더 넓은 곳에서 찾아보는 취지”라는 것이다.

영배 스님은 또 “현재 동국대는 대내외적으로 도전과 시련에 직면했다. 동국대 발전을 위해서는 첫째가 재정확충이며 둘째가 경영관리능력”이라며 “이러한 시점에서 차기부터 규정을 제정해 적용하자는 논리는 안일한 생각”이라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차기 총장 후보 선출과 관련해 교수회측은 교수회와 직원 노조를 중심으로 한 ‘직선제’, 법인은 교직원·종단 대표·총동창회 등을 중심으로 한 ‘간선제’를 주장하고 있다.

남동우 기자

목탁소리

5월 24일 함양 무량사 자연선원에 참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전달된 한 장의 최고서가 전달됐다. 한 달 뒤 이곳을 강제 철거하겠다는 통보였다. 강제 철거가 진행되면 무량사 주지 정오 스님은 20년 가까이 수행정진하며 거꾸는 도량을 한순간에 잃게 되는 것이다.

정오 스님

강제철거 앞둔 무량사

이 무량사에 온 것은 1987년. 산주(山主)가 조그만 촌가를 보시한 이후 지금은 은행동나무로 조성한 3차 7치의 아미타불을 모신 무량광전, 지장전, 요사채를 갖춘 도량으로 가졌다. 당시 산주 자비(自費)로 도로까지 내어주며 때가 되면 산 전체를 도량으로 바꾸자고 해, 스님은 그 약속만 믿고 서무상의 질차를 받지 않았다.

무조건적인 ‘믿음’이 문제였다. 서류상으로 스님이 일군 도량의 소유권을 주장할 만한 어떠한 근거도 없이 7년 전 산의 소유주가 갑작스럽게 바뀌고 산이 경매

처분 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경매가 진행될 당시 현 산주도 ‘절’을 계속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해 스님은 경매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두 번의 믿음은 철저하게 외면됐고 법정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도량수호를 위한 1000일 기도를 실천하고 목숨을 걸고 도량을 지키겠다는 정오 스님이 지만 법이 우선이고 서류가 힘을 쓰는 시대에 도량을 지켜줄 뿐 타리는 스님의 정진력과 불심뿐

이다. 늦게나마 불자들에게 호소하며 산을 사서라도 도량을 지키겠다는 원력을 발한 지금, 전국의 불자들이 1불자 1방 사기에 동참해 서라도 무량사가 수호되길 바라는 맘 간절하다.

또한 제2, 제3의 정오 스님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보시의 참다운 공덕을 지켜가기 위해 서는 보시 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법적 효력이 있는 명확하고 분명한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그 서류 절차가 불도량을 지키는 신장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시기 때 문이다. ■천미희 기자(부산 주재)

일불대중사원적10주기추모 인류화합 세계평화 기원대법회

나무 불법승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위한 해외포교의 선구자로서 일생을 마감하신 일불 대중사 원적 10주기 추모대제와 아울러 대중사의 생전원력인 인류화합과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대법회를 아래와 같이 봉행코자 합니다. 사부대중의 많은 동참을 희망합니다.

- ◆ 추모법회 : 2550(2006). 6. 4. 오전 10:00
- ◆ 기원법회 : 2550(2006). 6. 4. 오전 11:00
- ◆ 장 소 : 서울 일불선원 법당
- ◆ 문의처 : 02)394-9468 (종단 총무원) 02)395-6655 (일불선원)

증 명 : 봉암

법 주 : 동명 청국 원정 현공 법담 법묘

자문위원

고성 도찬 도배 도환 도진 도만 법만 자명 도운 효담 정봉 도용 범용 법진 월인 도원 대성 범광 관우 해문 태허 무용 경호 해진 법천 원호 진성 혜성 진성 혜국 해진 운광 해오 대덕 해광 무위 규암 계전 광탄 만상 분자

지도위원

경공 고광 공덕 관무 관일 관순 금오 기명 기봉 기원 남용 대경 대공 대성 대원 덕명 덕산 덕암 도광 도명 도봉 도현 도용 동원 동월 두암 마계 명달 명연 봉룡 무상 무원 미산 범광 범교 법도 법린 법산 법인 법조 법철 법화 법현 법산 보광 보덕 보선 보천 보하 보현 북장 선철 성공 성덕 성립 성암 성오 성우 송광 송담 수연 수월 순담 영수 오룡 원명 원진 원연 월오 인선 일선 일암 일진 일초 왕연 자광 자립 자안 자행 정자 정법 정암 정원 정인 정안 제법 중산 지관 지명 지산 지승 지일 지혜 진공 철민 철중 철국 청암 초혜 학림 해강 해담 해룡 해심 해운 해주 현각 현공 현수 해관 해도 해산 해성 해승 해심 해월 해인 효봉 효일 산다마

봉행위원장 : 범우

봉행위원

강대연 강도현 강석태 강성순 강정희 강지도 강평식 강홍철 고금순 고성민 고승진 고오연 고은정 고인덕 고정길 고창식 고충준 공민중 광영근 광윤기 광중환 권기순 권기주 권상탑 권영구 권영래 권진석 권팔만

김 수 김 훈 김경호 김교경 김구희 김규덕 김규백 김근식 김금옥 김기석 김길섭 김남학 김대각 김대용 김동주 김동욱 김민암 김명숙 김명진 김문수 김민구 김민현 김방일 김범수 범계화 김병락 김병철 김삼문 김상술 김선태 김성규 김성태 김성숙 김수열 김숙자 김순배 김승억 김애숙 김양자 김영숙 김영창 김영희 김예설 김완식 김용호 김우영 김원진 김윤규 김인순 김일순 김자현 김계경 김정태 김정희 김중국 김준기 김진갑 김진명 김천용 김춘자 김태민 김태홍 김현갑 김현수 김현주 김형선 김혜술 김혜영 김호연 김홍석 김취진 김희기 김희덕 김희식 김희진 노순애 노연식 노효순 대련화 대륜실 대법화 대비실 마향숙 민병택 민영옥 발달선 박선희 박순남 박운준 박일순 박정주 박정희 박창경 박태일 배병준 배옥화 범화심 변경자 변봉현 서길자 서동훈 서두수 서성택 서익석 서영애 서윤래 선양회 소영식 손정수 송이순 송중수 수월실 신덕승 신동기 신범은 안석분 안용국 안용희 양순자 양혜옥 엄진영 엄정희 연화행 엄정섭 오금주 오규우 오혜자 우미란 우진혁 원기연 유영두 유태미 윤 섭 윤경배 윤성도 윤용암 이강욱 이경선 이정순 이기호 이명규 이명재 묘련화 이무자 이범화 이봉헌 이상순 이상준 이상철 이석근 이선재 이성숙 이성위 이순순 이순희 이영애 이창희 이재욱 이정원 이정환 이지혜 이창두 이창현 이준하 이태숙 이현정 임덕임 임순정 임영자 임정심 임정자 임주화 임홍수 임홍순 장비행 장순옥 장철호 장혜운 전미선 전선자 조규현 조민숙 조방선 조선화 조애자 조은희 조희자 주원자 지경자 지계분 진공성 진철문 최갑연 최동식 최명자 최부금 최송식 최영희 최인선 한상오 한희정 허 경 허순애 홍봉오 황승현 황계수 황원옥 남궁은숙 (가나다순)